

2016 대한민국건축사대회

The 10th Korea Architects National Convention 2016

전국의 1만 3천여 명의 건축사들이 모여 '국민이 행복한 건축'을 위한 새로운 결의와 각오를 다졌다. 대한건축사협회는 11월 16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16 대한민국건축사대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건축사대회는 전국의 건축사들이 모두 모이는 유일한 행사로 1989년 전국건축사대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후 이번에 10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대회장인 대한건축사협회 조충기 회장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명예대회장을 맡아 공동으로 주최하고 인천광역시건축사회가 주관하는 건축계 최대의 행사로 꾸며졌다.

'건축사! 건축문화 가치 재창조'란 주제로 진행된 행사에서 조충기 대회장은 건축사가 국민의 안전과 풍요로운 삶을 책임지고 있는 건축전문가로서 '국민이 행복한 건축'이라는 목표를 향해 새 지평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축사는 새 시대 건축문화 가치를 창조해 국민이 행복한 건축시대를 펼쳐가기 위한 자부심과 사명감도 반드시 간직해야 할 중요한 가치임을 역설했다.

건축사대회는 개회연설, 환영사 및 축사, 주제영상이 상영됐으며 이어 '국가공인건축가로서의 건축사'의 국가적 책임과 의무를 다짐하고, 지역의 역사, 문화를 건축으로 창조하는 전문가로서 '미래가치 재창조'를 위한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또한 '내가 본 한·중·일 정원의 미학'이라는 주제로 유홍준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전 문화재청장)의 초청 강연이 있었으며, 건축사들의 건축가왕 선발대회, 퀴즈 풀고 유럽가자 '럭키 인 인천' 등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이번 건축사대회는 11월 15일 열린 전야제를 시작으로 16일 본대회, 17일 진행된 송도 국제도시(하늘과 맞닿은 미래, 도시의 스카이라인)·중구 개항장(광복 70주년 한국 근대건축물 탐방) 일대의 건축물 탐방까지 3일 동안 진행됐다.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차기 대회는 2018년 '서울특별시'에서 열린다.



1. 행사 전경
2. 대회기를 흔들고 있는 조총기 대회장
3. '미래가치 재창조'를 위한 비전선포식
4. 시도건축사회 회장단



1

2

3

4